



‘한국영화의 얼굴’이자 원조 월드스타인 배우 강수연이 7일 영면에 들었다.

스포츠동아DB

배우 강·수·연 별세...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

국제영화제 휩쓴 ‘원조 월드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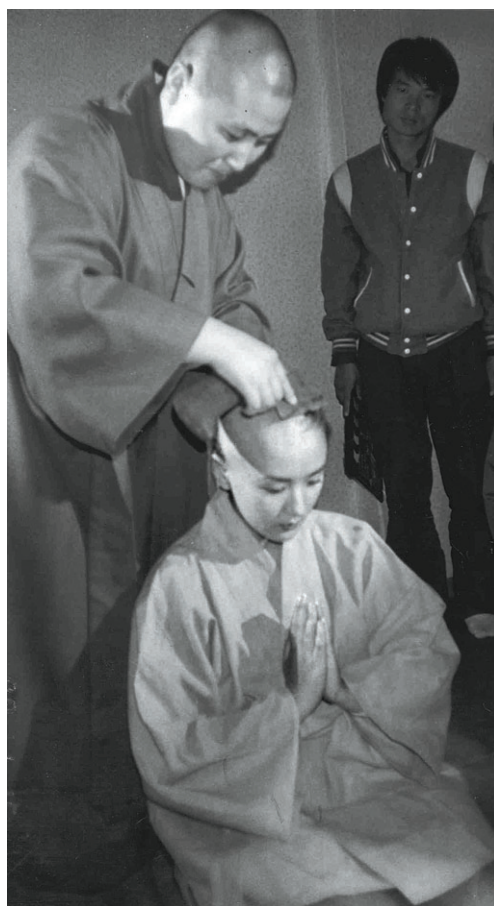
뇌출혈 심정지...7일 55세로 사망
네 살 때 길거리캐스팅으로 데뷔
‘고교생 일기’로 하이틴스타 우뚝
베니스영화제 ‘씨받이’ 여우주연상
‘아제...’로 모스크바영화제 주연상
드라마 ‘여인천하’ 정난정역 재팬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명언 화자

“관객에게 사랑받는, 연기 잘하는 예쁜 할머니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에요.”

평생을 배우로 살고자 했던 ‘월드스타’ 강수연의 생전 바람은 못다 이룬 꿈이 됐다. 하지만 연기를 향한 고인의 열정과 사랑은 그의 작품 속에 고스란히 남아 숨 쉬고 있다.

5일 서울 강남 압구정동 자택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쓰러졌던 강수연이 쾌유를 바라는 영화관계자들과 팬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7일 오후 3시 별세했다. 향년 55세.

고인은 쓰러지기 며칠 전까지도 동료들과 함께, 이전 유작이 되고만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정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들은 고인이 연기에 대한 열정과 복귀를 앞둔 설레는 마음을 드러내며 다시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돌아섰다. 아역배우로 데뷔



영화 ‘아제 아제 바라아제’서 비구니 역을 하며 촬영 중 사발하는 강수연. 그는 “머리는 또 자라는 법”이라며 영화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사발 장면은 한국영화사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손꼽힌다. 스포츠동아DB

해 하이틴스타를 거쳐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된 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화와 연기만을 생각한 ‘진정한 영화인’이라고 영화계는 기억한다.

●하이틴스타

1969년 우연히 영화관계자의 눈에 띄어 영화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고인은 동양방송(TBC) 전속 아역배우로 활약하며 약 100여 편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1983년 KBS 1TV 청소년 드라마 ‘고교생 일기’를 통해 최고의 하이틴 스타로 우뚝 섰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성인 배우로 처음 출연한 영화 ‘고래사냥2’에 이어 2년 뒤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가 그해 한국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하면서 고인은 청춘스타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월드스타

하지만 ‘하이틴 스타’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다. 당시 여성배우로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작품과 역할로 끊임없는 이미지변화에 나섰다. 대리모로 양반집에 들어간 뒤 버림받는 기구한 여성의 삶을 그린 임권택 감독의 ‘씨받이’는 연기 인생의 변곡점이 됐다.

이 영화로 스물한 살 나이에 동아시아 배우 최초로 1987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월드스타’의 타이틀을 얻었다.

2년 뒤 비구니 역을 맡아 사발까지 감행한 영화 ‘아제 아제 바라아제’로는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관련기사 2면
이승미 기자 smilee@donga.com



KIA 나성범이 8일 대전 한화전에서 4타수 3안타 1홈런 2타점의 맹타로 팀의 5연승과 외국인투수 선 놀린의 KB O리그 데뷔 승을 거들었다. 스포츠동아DB

나성범 투런포·‘불운 투수’ 놀린 첫승...KIA 파죽의 5연승

한화전 싹쓸이...올시즌 한화상대 6전승
놀린 5.1이닝 3실점...6경기 만에 데뷔승
나성범 4타수 3안타 2타점 승리 선봉장



KIA 타이거즈가 한화 이글스를 또 제압했다. KIA는 8일 대전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한화와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주포 나성범의 4타수 3안타 1홈런 1볼넷 2타점 2득점 맹활약을 앞세워



선 놀린

KIA 외국인투수 선 놀린이 선발등판해 한화 타선을 상대했다. 놀린은 앞선 5경기에서 평균자책점(ERA) 3.42의 준수한 피칭을 했지만, 단 1승도 챙기지 못했다. 오히려 전패를 당하며 불운에 몰려야 했다.

놀린은 3회까지 무실점 행진을 펼치며 스스로 불운 탈출을 시도했다. 그런 놀린을 돕기

위해 타선이 일찌감치 불을 뿜었다. 2회초 1사 만루서 박찬호의 희생플라이로 선취점을 올렸고, 3회초 1사 1·2루선 최형우의 1타점 적시타로 2-0을 만들었다.

KIA 타선은 4회초 폭발했다. ‘해결사’ 나성범이 대표를 쏘아 올렸다. 2사 1루서 한화 선발 윤대경의 높은 직구를 밀어 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아치를 그렸다. KIA는 3번타자 나성범의 2점홈런을 필두로 4회초에만 4점을 보태 6-0까지 달아났다.

1회초 첫 타석에서도 좌익수 킬을 넘기는 2루타를 날렸던 나성범은 경기 초반 일찌감치

장타 2개를 수놓았다. 9회초에도 안타를 추가해 최종 3안타로 ‘한화 킬러’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뽐냈다. 올 시즌 나성범의 한화전 타율은 0.476(21타수 10안타)까지 올랐다.

놀린은 6회말 1사까지 마운드를 지켰다. 1사 1·2루 위기서 노수광에게 2타점 3루타를 맞고 마운드를 내려갔다. 최종 성적은 5.1이닝 9안타 3실점.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에는 실패했지만, 선발 투수로서 승리요건을 갖추며 제 몫을 해냈다.

7회 1점을 더 도망간 KIA는 홍상삼~전상현~장현식~정해영으로 이어진 불펜 물량공세로 한화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쳤다. 놀린은 6경기 만에 KBO리그 데뷔 승을 거뒀다. 특급 도우미는 단연 나성범이었다.

대면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식품유형 : 과채음료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